

‘무패 드라마’ 해피엔딩 주인공은?

‘집념’의 크로아티아

16일 0시 결승전

‘패기’의 프랑스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전 크로아티아-잉글랜드전이 종료되자 승리한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 프랑스-벨기에전에서 옴티티(왼쪽 두 번째)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앙트완 그리즈만(왼쪽부터), 라피엘 바란, 폴 포그바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크로아티아, 토너먼트 3게임 연속 연장 혈투 끝 사상 첫 결승 진출
양팀 본선 6게임 무패... 1998년 준결승 이후 20년만의 리턴매치
프랑스, 음바페·그리즈만 속도 강점... 크로아티아 체력 회복 관건

16일 오전 0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경기가 열린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서 20년 만에 재결속한다. 크로아티아가 12일 열린 잉글랜드와 준결승에서 1-1로 맞선 연장 후반 4분 터진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역전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크로아티아는 ‘축구 중기’ 잉글랜드의 상 승세를 잠재우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에 올

랐다. 앞서 ‘황금 세대’ 벨기에를 꺾은 프랑스가 결승에 선착하면서 크로아티아는 오는 16일 오전 0시 프랑스와 월드컵 우승컵을 다툰다. 이번 결승전을 통해 크로아티아와 프랑스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20년만의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해 1993년 FIFA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처음

출전에 월드컵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크로아티아는 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오른 다 보르 슈케르를 앞세워 ‘전차 군단’ 득일을 꺾고 준결승까지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4강에서 크로아티아의 도전이 멈췄다. 당시 상대가 바로 개최국 프랑스였다. 준결승에서 프랑스에 1-2로 진 크로아티아는 네덜란드와의 3-4 위전에서 2-1로 승리하며 3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크로아티아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2010년 남아공 대회는 본선 진출조차 이루지 못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본선 진출에 만족해야 했던 크로아티아는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돌풍의 주역이 됐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와 함께 C조

에 편성됐던 크로아티아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3연승을 달리며 16강에 올랐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사상 최초로 세 경기 연속 연장 후 결승행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덴마크와 16강전, 러시아와 8강전에서 연달아 승부차기 접전을 벌였던 크로아티아는 잉글랜드와의 4강 싸움에서도 전·후반 90분은 물론 연장전까지 모두 120분을 뛰어넘어야 했다. 다행히 승부차기에 앞서 승부를 결정지었지만 그야말로 고난의 3연전이였다. 만주키치와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이반 라키티치(FC바르셀로나) 등 마지막 황금세대를 앞세운 크로아티아는 어렵게 결승에 오른 만큼 마지막 결승에서도 투혼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와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신예 선수들을 내세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 우승 이후 20년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공·수의 완벽 조화가 돋보이는 프랑스에는 크로아티아에 하루 앞서 결승행을 확정지었다는 게 또 다른 힘이다. 프랑스는 연장 혈투를 이어온 크로아티아를 힘으로 제압하며 우승을 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결승 진출에 실패한 잉글랜드와 벨기에에는 14일 오후 11시 3-4위전을 치른다. G조에서 선두 다툼을 했던 두 팀은 4강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두 팀을 대표하는 골잡이의 활약에 눈길이 간다. 두 경기 연속 침묵한 ‘득점 1위’ 잉글랜드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6골·토트넘)과 4골을 기록한 벨기에의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더 뺄 수 있다” 투혼 불사른 크로아티아

전·후반 90분 교체 ‘0’... 달리치 감독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선수 교체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요? 바꾸고 싶었지만 아무도 교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이 열린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 크로아티아는 전·후반 90분이 다 끝날 때까지 선수를 한 명도 바꾸지 않았다. 상대 잉글랜드도 후반 29분에 마커스 래슈퍼드 한 명을 교체 투입한 것이 전부이긴 했지만 크로아티아는 잉글랜드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다. 바로 덴마크와 16강, 러시아와 8강전을 모두 승부차기까지 치르는 바람에 그만큼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로아티아는 적절한 선수 교체가 필수적인 처지였지만 크로아티아의 즐라트코 달리치 감독은 손을 내저었다. 달리치 감독은 “당연히 선수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선수 그 누구도 교체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모두 ‘나는 더 뺄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고 팀 분위기를 소개했다. 실제로 크로아티아는 연장 전반 5분에 첫 선수 교체를 했고 이후 연장 전반 11분, 연장 후반 10분과 14분에 선수를 바꿔 투입했다. 크로아티아는 16강부터 4강까지 세 경기 연속 연장전을 치르고 결승까지 진출한 최초의 나라가 됐는데 그 이면에는 선수들의 이런 강인한 정신력이 뒷받침된 셈이다. 이미 전날 결승 진출을 확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프랑스는 크로아티아가 20년 만에 재대결을 베풀는



상대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4강에서 크로아티아는 프랑스에 1-2로 진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은 크로아티아가 1991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대회였다. 달리치 감독은 “그때 관중석에서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지켜봤다”며 “크로아티아 사람이라면 그 대회에서 프랑스와 했던 경기를 누구나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실욕하겠다고 나서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중가 재건의 꿈’ 와르르

52년만의 결승 도전, 크로아티아에 발목... 14일 3·4위전

‘축구 중기’ 잉글랜드가 꿈꿨던 52년만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크로아티아의 일격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잉글랜드는 12일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4강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터진 키런 트리피어(토트넘)의 그림 같은 프리킥 선제골로 1-0 리드를 잡을 때만 해도 우승을 차지했던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52년만의 월드컵 결승 진출 꿈이 무르익는 듯했다. 전반을 1-0 리드로 마쳐 결승행 티켓 획득 기대감이 컸다. 잉글랜드는 1996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1990년 이탈리아 대회 4위를 빼고는 결승 문턱에 가보지 못했던 터라 이번이 2014년 브라질 대회 조별리그 탈락 수모를 털어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하지만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 꿈은 크로아티아의 투혼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광주 FC, 수원 잡고 3위 간다

K리그2 15일 19R...공·수 고른 활약을 시즌 수원에 전승

프로축구 광주 FC가 ‘킬러 본능’을 깨워 수원 FC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6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와 KEB하나은행 K리그2 19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후반기 출발이 좋다. 광주는 월드컵 휴식이 이후 치른 홈 3연전에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1위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만들어 냈고,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는 3골을 몰아치면서 3-0 승리를 거뒀다. 앞선 부산 아이파크전에는 빠듯한 3연전 일정의 어려움을 딛고, 선제 실점 뒤 동점골을 넣으며 승점 1점을 보탤다. 3위 부산과 승점 3점 차로 다가선 광주는 상위권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해진 득점 루트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 그리고 뉴 페이스들의 활약이 어우러지면서 광주의 순위 싸움에 힘이 실렸다. 광주는 현재 리그 득점 선두 나상호(8골) 이외에도 정영종(3골), 김정환(4골), 김민규(1골) 등 공격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풍부한 중원 자원들은 광주의 공·수 균형을 잡아 주고 있다. 임민혁을 비롯해 김동현, 여봉훈 등 기존 자원에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합류한 최준혁과 이승모도 빠른 적응력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다.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의 공격 주도권을 잡고 있었지만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토트넘)을 비롯한 선수들의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6골로 득점왕 기대를 부풀리는 케인의 2경기 연속 득점포 침묵이 뼈아팠다. 잉글랜드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이어졌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3분에 나온 이반 페리시치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뒤 연장 후반 4분 만주키치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두는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우승 도전이 좌절된 잉글랜드는 14일 오후 11시 샹페르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벨기에와 3-4위 결정전으로 대회를 마감한다. /연합뉴스

부산전에서 경고누적으로 잠시 쉬어갔던 여봉훈의 출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체력이다. 광주는 잔여 경기 일정을 소화하느라 1경기를 더 치렀다. 무뎠고 습한 날씨도 선수들을 괴롭힌다. 부산전에서도 후반 막바지 체력 저하와 함께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자신감은 넘친다. 광주는 올 시즌 수원FC만 만나면 필패 낳았다. 2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홈에서 벌인 첫 대결에서는 5-0 대승을 거뒀다. 방심은 금물이다. 현재 수원FC는 전반기 모습과 다르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광주를 승점 2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이번 여름 알찬 보강에 성공하면서 공격 날카로움이 더해졌고 수비는 안정을 찾았다. 초반 기선 제압과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필요하다. 광주가 수원FC 킬러 명성을 이어 상위권 도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